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타난 1980년대의 사회상과 복식에 관한 연구

The Social Aspects and Costumes of the 1980's Expressed in the Movie 'American Psycho'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 김혜정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조교수 박지훈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Hye Jeong
Dept. of Fil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ssistant Professor : Park, Ji H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타난 복식 |
| II. 영화에 있어 복식의 의미 | 1. 1980년대 복식 경향 |
| III.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배경 및 내용 | 2.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타난 복식 |
| 1. 198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 V. 결론 |
| 2.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내용 | 참고문헌 |

<Abstract>

A movie's fashion style delivers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scene including the characters's class, personality, spiritual world and inner thinking and even their conflicts in the story.

The movie 'American Psycho' directed by Mary Harron and based on from Bret Easton Ellis's original novel ridicules the American yuppie culture of the 1980's through the behavior of the hero Patrick Bateman. The life style of the yuppie sees itself as the high-class embodiment of a particular culture, but the various subcultures such as Glam and Punk show that it is merely a two-faced culture suffering from hypocrisy and mammonism.

An analysis of the costumes found in the movie indicated an exhibition of the 1980's Haute Couture fashion, which was mainly occupied by the mainstream social class and of the social phenomenon of post-modernism. The anti-fashion presented in the movie as the resistance culture formed by the subculture was in extreme contrast with the expression of self-actualization.

주제어(Key Words):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 Psycho), 1980년대(1980's), 복식(Costume)

I. 서론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접목된 종합 공간예술인 영화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현실의 생활의 실제적 삶을 보여줌으로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과 상호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산실로서 유행코드를 생성해내고 있다.

특히 영화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복식은 영화 속 이미지와 분위기를 전달하며 인물의 성격과 정신세계나 내면적 사고를 함축하고 영화의 플롯을 이끌어 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미적 영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유행을 이끌어 가는 패션 리더로서 패션 디자이너에게 무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근원이 되고 있다.

최근의 영화의 부흥기와 맞물려 영화의 한 영역으로서의 복식이 영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가면서 메이저급 영화사들은 영화 속 복식스타일 연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영화의 새로운 스타일과 정확한 시대 구현을 위해 복식의 철저한 고증과 재창조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대상으로 영화 속 시대상과 함께 복식스타일을 분석함은 복식이 1980년대의 문화적 코드를 형성하고 유행을 창조해낼 뿐 아니라 영화 속 캐릭터의 성격을 유추, 창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영화 속 복식이 패션산업과 상호 관련함을 증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 DVD를 관람 후 1980년대 주류계층이었던 여피(Yuppie)족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스타일을 분석하고, 고급문화인 여피문화에 대비되는 하위문화로서 글램과 펑크의 가치체계와 룩(Look)의 분석을 통해 감독이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와 당시 지배했던 사회적 현상을 논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복식이 영화 속 예술적 표현으로서 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모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영화 속에 착용되어지는 복식이 극중 인물의 성격과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수단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사조, 그 배경 속의 시대정신 등의 함축적 의미와 동시대의 문화적 문맥과 동질적 이슈를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II. 영화에 있어 복식의 의미

아트디렉터(Art Director)와 코스튬디자이너(Costume

Designer)와의 합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 속 복식은 대본을 숙독하고, 필름의 종류에 의한 색감의 차이와 조명 등 영화전반의 세부사항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창조되어진다.

또한 영화 속 복식스타일은 캐릭터의 신분이나 태도, 습관, 양식,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캐릭터의 내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상, 분장, 헤어, 동작, 걸음걸이, 표정 등과 함께 함축되어 연출된다.(박지훈, 2006:150)

영화 속 복식을 자끄 마누엘르(Jacques Manuel)은 '살아 있는 인간적 장치(La Vivant Decor Human)', 타이로프(Tairoff)는 '배우의 제 2의 피부'로서 캐릭터의 연령이나 신분, 지위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을 파악케 하며 극의 이미지나 캐릭터의 심리상태까지도 표현하는 한 도구로서 배우의 동작이나 표정 등과 함께 함축한다고 보았다.

니콜 피터(Nicole Peter)는 '감독은 배우에게 어울리는 의상보다는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옷을 입혀야 한다'고 하여 영화 속 복식이 극중 인물의 성격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의 형태를 통해 상황을 나타내듯이 극중 인물의 내재한 깊은 심성을 영상화하기 위해 배우가 복식을 착용하고 연기를 하면 그 복식으로 인해 연기와 대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니나포셰(Nina Poche)는 '복식이 주는 성격 창조'라고 하였다.(이정희, 1997) 니콜 베드레는 '찰리 채플린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모자, 구두와 짧은 바지와 같이 영화 속 복식이 배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alph Stephenson, 1996:166-167). 우리 로트만(Lurii Lotman)은 미의 기준은 유동적이어서 관객의 취향에 맞는 미인을 택하여 배우의 머리모양, 눈썹 색깔, 입술 색깔 등 관객에 익숙한 쪽으로 해야 하며 복식은 역사적 시기의 실제 복식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특정시대의 기호로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배역의 성격, 심리 등을 상징적으로 연출하는 효과적 표현 수단임을 강조하였다.(Lurii Tynianov, 2001:249) 이러한 주장들을 비추어 볼 때 영화 속 복식은 도상으로 존재하며 특별한 기호나 기호집단으로 묘사되고 주인공의 내면적인 감정, 극의 성격과 전개될 스토리 등을 암시함으로써 관객과 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복식디자이너는 유행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창조되어진 복식은 극중 인물에 의해 소개되어지고 영화라는 특수 광고 효과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유행으로 전파되어진다. 특히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영화메카인 할리우드 영화를 담당하

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세계 어느 나라 디자이너들 보다 유행을 형성,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이정희, 1996)

초기 무성영화 이후 영화를 담당했던 스튜디오는 서부의 상징인 웨스턴(Western Costume Company)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독자적인 의상부를 만들어 줌으로서 영화 속 복식이 영화 제작의 한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계가 무성영화의 황금기(Golden Silent)의 서막을 올리면서 복식이 영화의 한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그 결과 영화 속 복식을 담당했던 디자이너들은 영화 속 복식 뿐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들의 일상복들을 만들어 유행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작업했던 베라 웨스트(Vera West, Universal), 에디스 헤드(Edith Head, Paramount), 오리켈리(Orray Kelly, Warner)는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하면서 영화 속 복식을 담당했던 이들이 영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1960-70년대에 와서는 스튜디오에 전속하여 활동하는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대의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된 기성복을 대여한다든가 혹은 브랜드의 의상을 협찬하는 방식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였다.(김미성, 김옥진, 1999) 최근에 이르러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영화 속 복식을 담당하게 되면서 영화 속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그림으로서 대중에게 보여진 영화 속 의상이 유행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복식이 영화에 있어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 예는 많다. 영화 '이유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1955)'의 제임스 딘(James Dean)의 진 스타일, '우리들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 Clyde, 1967)'의 바니룩, '위대한 게츠비(The Great Gatsby, 1974)'의 게츠비 모드, '애니홀(Annie Hall, 1977)'의 애니홀 룩 등은 영화를 통한 패션의 정보전달로서 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다(이정희, 1996).

배우들은 외모적 매력을 부각시키고 대중을 매료시키기 위해 더욱더 복식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복식이 영화의 극적 스토리 전개에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관객으로 하여금 동조현상을 이끌어 내어 유행을 창조해 내게 되었으며 이는 영화 속 배우가 패션의 인물로서 새로운 유행의 기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I.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배경 및 내용

1. 1980년대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1980년대는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오던 동, 서 냉전 체제가 소련의 고르바초프(Gorbachev)에 의한 '페레스트로이

카(Perestroika)' 정책에 의해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 전환점의 시대이다. 고르바초프는 경기침체를 극복 하려는 방안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산업 구조를 과감히 민간구조로 개편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관료적인 행정 업무를 청산시켰으며 대통령제를 실시하여 전체적 정치를 민주적 정지로 전환하는 일대 대 변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동, 서양으로 나누어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으며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있던 동구권 국가들,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이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련과 미국의 정상들은 세계 평화와 냉전 종식을 위해서 미소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세계를 반으로 나누게 한 이념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더불어 동, 서양의 문화가 개방되면서 세계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높게 일어났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발전은 가정용 컴퓨터의 등장과 보급이었다. 소형 컴퓨터의 등장으로, 회사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 기존의 작업 방식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오피스의 혁명이 도래하였으며 미비하게나마 산업용 로봇의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실험되어졌다.

산업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과는 별개로 70년대부터 지속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국내 문제를 도외시한 레이건 행정부가 초래한 문제들의 증가 및 다양한 요소들이 미국적인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자신감에 찬 미국인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였으며 양적 중심의 생산보다는 질적 중심과 다양화 및 개성을 중요시하는 패턴이 요구되었다.

또한, 각종 성인 매체와 범람한 변태적 성향으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병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의 기본적 가치관과 생활 형태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점점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 여가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어난 시기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로 대변되는 계층이 사회 전반에 중추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학생 운동의 선봉에 서서 반전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자아 독립성이 강하였으며 지적인 수준을 갖추었고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는

데 대체적으로 사소한 물품이라도 장황하고 큰 형태를 선호한 것이 특징이었다. 패션에서도 헤어스타일을 부풀리거나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였으며 착용된 의복에 있어서도 어깨를 강조하기 위해 패드로 과장하고 컬러도 굉장히 밝고 요란한 것을 선호하였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레스토랑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서 당시 미국의 고가의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부엌과 욕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았고 흔히, 두 서너 명의 룸메이트들은 기본이었다. 평범한 뉴욕커들조차 실생활 공간을 탈피하고 싶은 환상을 품고 새로운 공간에 많은 의미와 비중을 두었다. 이 같은 이유로 레스토랑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누구나가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일반화된 문화 형태였으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클럽과 극장, 바 같은 곳으로 이동해 남은 여흥을 즐기는 것을 반복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피족이라고 불리는 젊은 엘리트 집단이 산업계와 정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나타내었다. 여피(Yuppie)라는 말은 젊다의 Young, 도시의 Urban, 전문성의 Professional을 줄여 표현한 말로서 물질의 풍요와 소비 중심의 현대인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주목받게 된다. 이들의 소비 행태는 최고급 브랜드를 선호하였고 먹는 음식도 최고급 레스토랑을 즐겨 찾았다. 여가 형태도 남들의 시선과 경비에 구애 받지 않는 모험적이며 활동적인 레포츠를 즐겼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전시회에도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사교 클럽도 애용하였다.

여피 대접을 받으려면 미국 동부를 기준으로 최소 뉴욕 근교에 거주해야 했으며 연봉 4-5만 달러 이상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해야 했다. '미국 News Week' 지는 1984년 9월 <Year of the Yuppie>라는 기사에서 도시의 젊은 전문 직업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차림새는 레이건의 치세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도했으며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의 말을 빌려 "여피는 중류층 부르주와이며 이들의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실천의식은 1980년대 미국 사회에 필요한 이상적이고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최호정, 하지수, 2005). 여피는 90년대에 들어와 탈 도시화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거주 문화와 새로운 개념의 집단 들이 생겨남으로서 사라져 갔지만 1980년대의 시대가 만들어낸 문화적 부산물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표면적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조지나 호웰(Georgina Howell)은 '활동의 시대,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 신분상징,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숭배,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개인주의, 무관심, 디자이너브랜드의 상표 충성, 헬스 및 미용에 대한 자기관리, 패스트푸드 음식' 등으로 보았다

(전성정, 안현경, 이귀영, 문운경, 2002:207-208).

문화적 측면에서의 1980년대는 영상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80년대에는 컴퓨터의 보급뿐만 아니라, 캠코더(Camcorder)와 VCR(Video Cassette Recorder)이 등장함으로써 누구나 캠코더만 있으면 개인용 영화를 손쉽게 찍어 VCR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영화관을 벗어나 홈-씨어터(Home Theatre)의 개념이 태동되게 된 시기였다. VCR의 보급은 포르노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저예산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래 없이 많은 영화가 양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성인 영화관의 확산과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안방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에이즈의 확산에도 기여를 하는 단초가 되었다.

1950년대 TV의 보급으로 치명타를 입은 바 있는 영화계는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형 영화와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양산해내 VCR과 경쟁하였다. 영화는 이미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달로 인해 조지 루카스(George Lucas) 감독의 '스타워즈(Star Wars)' (1982)와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의 '인디애나 존스(Indiana Jones)' (1981)에 이은 'E.T.' (1985), 제임스 카메론(James Carmeron)의 "에어리언 II (1986)에서 기존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함과 스펙타클 한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해 진일보한 영상을 창출해 내어서 독자적인 활로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할리우드의 극장들도 80년대를 지나며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확대하였고 관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주말에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가족들을 잡기 위해 원-스톱 체제를 강화시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흑인들과 여성들의 인권 상승과 맞물려진 결과로 여성과 흑인 감독들의 데뷔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대표적인 여류 감독으로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ara Streisand), 마사 쿨리지(Martha Coolidge), 캐스린 비겔로(Kathryn Bigelow) 등이 있었으며 흑인 감독으로는 '스파이크 리(Spike Lee)와 '존 싱글톤(John Singleton)', '매티 리치(Mathy Rich)'의 작품이 두드러졌다. 스파이크 리의 경우, 미국 내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것을 가져야 해 (1986)를 통해 세계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감독으로 급부상 하였으며 후에는 메이저 영화로까지 진출하면서 흑인 계열의 미국 감독 중에서 최고의 지위와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캠코더의 등장은 방송국 채널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MTV(Music Television)는 미국의 케이블 TV 음악채널로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음악계의 혁명 뿐 아니라 영상과 음악의 접목으로 감각적 색채와

다채로운 화면을 보여주었다. 뮤직 비디오를 단순 방송하는 데서 출발했던 MTV는 이제 음악계, 영화계, 패션계 등 젊은 층의 관심사를 주로 전하는 채널 등 갖가지 히트 상품을 개발하면서 이미지들의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욱 빠르게, 예측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바뀌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음악장르에 있어서도 1970년대 경제적 불황기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한 펑크(Punk)와 락(Rock) 등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표출하였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확고한 자리매김은 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경제적 질서의 재편으로 음악장르의 활성화로 디스코음악의 유행을 가져왔다.

2.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내용

여성감독인 메리 해론(Mary Harron)감독에 의해 제작된 '아메리칸 사이코' (American Psycho)는 브렛 이스턴 엘리스(Bret Easton Ellis)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패트릭 베이트만(크리스찬 베일, Christian Bale 분)이란 연쇄살인마를 통해 1980년대 미국사회에 만연했던 여피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시대 젊은이들의 비틀어진 사회성을 꼬집으려한 영화이다.

어느 시대보다 다이내믹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1980년대의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심리 스릴러를 표방한 '아메리칸 사이코'는 1980년대에 배경이 되는 영화미술의 한 분야인 복식 및 세트를 통해 당시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한편으론 화려했지만, 사실상 많은 어둠움과 그들이 공존했었던 1980년대의 미국 상류층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낸 영화이다.

주인공 패트릭은 여피족으로 헬스와 스킨케어, 선텐, 헤어스타일링 등 외모가꾸기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발렌티노 수트와 올리버 피플 안경에 자존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의 자존감 뒤에는 팬시한 레스토랑에 예약하지 못하고 명함의 스타일에 자존심 상해하며 여피족 사교 모임에서는 자신을 다른 동료 마커스로 알고 있는 폴 알렌(재러드 레토, Jared Leto 분)에게 열등감과 적대감을 느낀다.

주인공 패트릭은 인종차별과 기아,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하지만 집에서는 포르노 영화를 즐겨보고 동양인 섹터소 주인에게는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약혼녀의 결혼하자는 말에 시간 없다는 말로 일축하거나 여비서 진(클로에 세비니, Chloe Sevigny 분)의 외모에 대해 스스럼없이 평가하고 매춘부에 대해서는 가벼움의 대상으로 밖에는 취급하지 않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이중적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마침내 자신이 예약에 실패한 레스토랑 도르시아의 단골 고객이며 자신보다 스타일이 멋진 명함을 가진 폴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여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Huey Lewis &

The News)'의 팝송을 들으며 그를 도끼로 난자하여 죽인 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여행 가방에 넣어 시체를 유기한다. 그 후에도 계속 패트릭은 관계를 맺던 매춘부부터 경찰까지 반복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지만 이 모든 것이 허상인 것으로 반전을 맞는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무차별적 폭력과 함께 여성을 즐기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성적인 불안, 히스테리, 사이코적 심리를 유머적 감각으로 풀어냄으로서 영화 전반적으로 심각한 스릴러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코믹 스릴러로서 일그러진 여피족의 일상을 비꼬고 있다.

또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나 가벼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인공의 행태는 남성적 쾌락의 매카니즘이나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여성상으로서의 팝콘비너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매카니즘을 통해 남성들의 우월주의를 꼬집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페미니즘 영화라 할 수 있다.

여비서 진이 패트릭의 메모장을 보며 악마주의적이고 편협주의적인 주인공을 분석해내고 사이코적인 정신상태를 유추해나가는 해석을 통해 자기표현이 소극적인 여성으로만 보여 주었던 역할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혼녀 에블린(리즈 위더스푼, Reese Witherspoon 분)의 패트릭을 제어하는 태도에서 남성 앞에서 당당하면서 자기 절제를 보이는 캐릭터를 교차해 나가면서 남성의 권위적인 상징적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 패트릭은 소극적이고 약한 여성 앞에서는 권위적이며 위압적인 태도로 권력구조상의 우위를 점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글루밍, 외모가꾸기와 패션스타일에 관한 관심은 기존의 남성관에 반하는 가치체계를 보여줌으로서 남성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한 캐릭터 안에서의 양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서 감독은 억압된 여성상에 대한 보상과 페미니즘적 시선으로서 남성성의 추락을 상징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IV.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타난 복식

1. 1980년대 복식 경향

The Face지(1985. 9)가 "1980년대 패션은 룩도 아니며 스타일도 아닌 무질서로 빠져 든 혼돈 상태이며 마치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평한 바와 같이(정현숙, 정홍숙, 1997) 패션에 있어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의 하나로서 패션 매체들에 의해 양성성(Androgynou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

며 1980년대 초부터 하위문화스타일에서 여성복이 남성스러움으로 대체되었으며 펑크패션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 청소년 패션은 TV 가수들의 스타일이 짧은 집단에 그대로 수용되어졌다. 70년대 말 존 트라볼타(John Travolta)의 토요일 밤의 열기로 인해 불었던 디스코 열기는 82년 전후하여 배기(Baggy)형 7부 바지인 일명 ‘디스코 바지’를 유행시켰고 영화 플래쉬 댄스의 주제가와 함께 여주인공의 큼직한 T셔츠나 스웨터의 빅 루스룩과 펜슬 실루엣의 가는 바지와 레그 웨머의 붐을 일으켰다(엄소희, 1995).

특히 1980년대의 MTV의 등장으로 인해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록 스타들의 음악 뿐 아니라 의상, 메이크업 스타일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여장한 보이조지나 양성적 차림의 데이빗 보위는 같은 뉴웨이브 록커들의 등장으로 남녀의 특성을 인정하는 성개념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성에 대한 인식은 착용된 복장에서 기존의 복식과 차별되어 앤드로지너스 룩과 크로스 드레싱이 나타났다.

《Fashion 86》에서는 “Changing Sex Painlessly”라는 제목 하에 85년의 패션 경향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Le Style Bowie’, 미국에서는 ‘Annie Lennox’, 영국에서는 ‘Fleet Street’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남성의 옷장에서는 다양한 레이스, 랩 스커트, 투명한 셔츠 등이 보이고, 여성의 것에는 남성적인 신발과 넓은 어깨의 재킷이 보인다고 하였다.(김경옥, 금기숙, 1998)

여성복에 있어서는 어깨, 가슴, 허리 등이 강조된 스타일로 바디 콘서스로서 인체를 의식하는 표현을 즐겨하였다. 이때 켈빈 클라인과 질샌더를 선두로 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으며 꾸뛰르의 신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의미로 누보 꾸뛰르 또는 뉴 꾸뛰르 등으로 불리었다.

남성복은 스포츠웨어의 발달로 캐주얼한 정장스타일이 착용되었는가 하면 80년대를 대표하는 남성복 디자이너 알마니, 휴고 보스, 랄프로렌이 제안한 어깨에 두툼한 패딩의 더블브레스트 정장인 파워룩은 여피족의 야망과 추진력을 상징하였다. 1980년대에 등장한 여피는 유명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비싼 차를 운전했다. 여피 남성들은 주로 넓은 어깨와 이탈리아풍의 긴 재킷,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바지에 생가죽 구두나 끈 달린 단화를 신고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주로 입었다(정홍숙, 1998: 404). 여피족에 의한 문화는 개인의 취향 중시와 밀실문화를 가져왔으며 고급문화를 상징하였다. 여피족들은 고급브랜드를 선호하였고 해적무늬나 악마무늬를 상징하는 서스펜더에 바지를 짝 조이게 입어 성기를 강조하였다.

2.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타난 복식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패트릭 베이트만이란 주인공의

행태를 통해 1980년대 미국의 여피문화를 조롱하는 영화로서 여피의 생활상이 특정계층의 고급문화임을 자처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선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병들은 이중적 문화임을 하위문화인 글램과 펑크족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피족인 주인공 패트릭과 에블린의 착용한 복식과 캐릭터를 통해 여피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스타일을 분석하고 고급문화를 추구했던 여피족에 반대 급부적으로 등장시킨 하위문화로서의 생물학적 파괴로서 글램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서 펑크를 통해 반패션 현상을 논하고자한다.

1) 고급브랜드를 지향하는 여피족

1980년대는 꾸뛰르 지향의 장식주의와 오프 꾸뛰르의 복권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들은 외모가 성공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여 버는 소득의 대부분을 외모 가꾸기에 과감히 투자하였다. 특히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 물질적 풍요를 외적추구에 몰입하여 고급브랜드 지향의 스타일 지향과 커다란 악세사리로 치장하기를 즐겨하였다.

또한 모던한 스타일과 상류층으로서의 오프 꾸뛰르의 고급화가 동시에 요구되어 상표가 중요시 되는 마케팅, 직업적 성공을 상품으로 상징화 시키려는 경향으로 고급소재와 브랜드가 선호되었다. 전면에 로고를 새긴 루이 뷔통 가방과 백, 모스키노의 커다란 벨트버클과 단추, 샤넬의 장신구와 핸드백 등의 액세서리가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 필로팩스다 이어리와 몽블랑 펜, 그리고 롤렉스시계가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최호정 외 1인, 2005)

영화 속 주인공 패트릭이 폴에 대해 적대시 하게 된 계기도 패트릭을 다른 동료 마커스로 착각하는데서 연유하며 여피들이 선호하는 명품발렌티노 슈트와 올리버 피플 안경을 착용했음에도 여피 사회에 소속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에 기인한다. 여피들의 사고모임에서도 명함스타일을 견주어 보고 착장한 자켓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보



〈그림 1〉 여피 패트릭의 스타일
(출처: (주) 스펙트럼디비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듯 여피족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지만 그런 외모적 동질성에서 벗어나 같은 집단 내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외적추구나 자기 정체감의 표현으로 더욱더 고급브랜드에 집착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그들은 물질지향적 과시와 자기과시의 속물주의에 편승하여 외양지향의 가치추구와 미적특성 등 신분 상징성에 몰두하였으며 특히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복식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2) 그루밍(Grooming)을 지향하는 남성들의 외모 꾸미기 성공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80년대의 또 다른 관심사는 '몸'으로 보디빌딩과 에어로빅의 유행을 가져와 몸의 윤곽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이었고 헤어스프레이와 무스로 세팅하여 굳힌 스타일을 즐겨하였다. 마침내는 남성복 오프푸트 라인에서 남성용 화장품라인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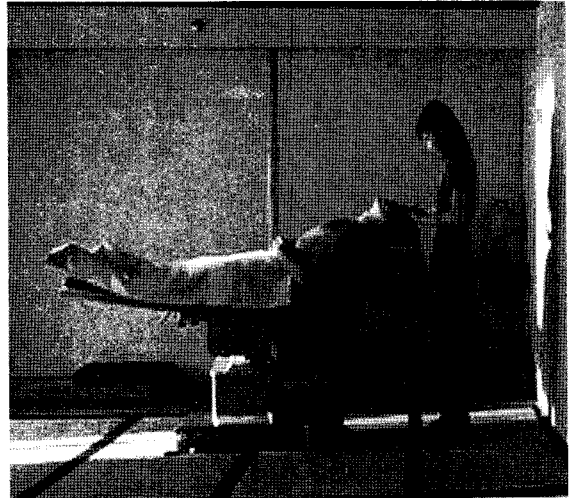
그루밍(Grooming)이란 패션 뿐 아니라 헤어 스타일링에서 손, 발톱관리를 포함하는 피부 가꾸기와 헬스 케어 등 몸매 가꾸기를 말하는 것으로 여피들은 부의 축적과 신체관리를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해 정체성과 자아가치를 찾으려 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신경을 썼으며 몸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상당수는 각종 스포츠와 조깅대열에 합류하였고 그들은 스파의 단골손님들이 되었다(한귀자, 2002).

역동적 바디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은 사이클링복, 에어로빅복 등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 웨어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이 시기의 의복은 다른 어느 시기의 것보다 몸의 윤곽을 강조하여 소재면에서 라이크라의 인기상승을 유도하였다.

영화 속 주인공의 피지컬 트레이닝이나 태닝 신과 뷰티용품으로 스킨케어와 마사지를 하는 장면의 연출은 패트릭의 역동적인 젊은 신체를 추구하는 외모 가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패션현상의 개방과 함께 여성적으로 여겨졌던 나르시시즘의 사이클로의 편입을 뜻한다(그림 2)

새로운 나르시시즘은 신체, 건강, 개인관계, 개인의 자울성과 자아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유니섹스적 물결로 성 역할과 정체성을 흐려 놓았다.(Gilles Lipovetsky, 1987:190) 또한 남성들의 외모꾸미기는 여성들이 외모꾸미는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였고 이러한 코드는 양성평등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의 외모에 치중한 라이프스타일의 선회는 개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징후로 개인관계나 성관계, 젊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패트릭이 마사지를 받는 장면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3) 권력지향적이며 권위적인 테일러드 룩의 등장

(1) 권력지향적인 모드로서의 파워드레싱(Power Dressing)

1980년대는 고가의 과시적인 패션과 함께 Y자형의 패딩은 어깨와 커다랗게 부풀려진 머리로 과장된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과장된 모드는 특정계층의 권력이나 권위의 이미지를 내포한다는 믿음이 커져 여피족들에 의해 즐겨 입혀지게 되었다. 물론 Y자형의 실루엣은 평범한 사무직원들의 모드에도 나타났지만 여피족들과는 소재에서 차이가 났다. 고급소재의 과장된 어깨는 여피들의 부와 권력을 갖춘 자의 특권을 표현하는데 적절했다.

실루엣에서 나타나는 권력지향적 모드의 대표적 파워 슈트(Power Suit)는 테일러드 룩으로 모던하고 엘리트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성공한 여성과 남성임을 나타내기 위한 파워드레싱 (Power Dressing, Dress for Success)이 유행하였다.

여성 여피들 역시 어깨가 강조되는 파워슈트에 짧고 타이트한 스커트나 또는 좁은 바지 스타일, 그리고 프릴과 페플럼이 우아한 블라우스를 착용하였는데, 남성복에서 기원한 어깨 패딩은 권위와 힘, 여성해방을 의미하는 80년대의 상징적인 유행이 되었다.

영화 속 여성들은 착용된 복식으로서 캐릭터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여비서 진과 약혼녀 에블린을 통해 성적 쾌락을 즐기는 편향된 남성을 비판하고 있다. 비서인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주인공 패트릭은 위압적 상사로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비서진의 외모나 스타일을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모습에서 남성의 가치 평가

에 의해 여성의 지위나 위상이 달라지거나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상하 관계속의 종속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마침내는 여비서를 유혹해 살해하려하지만 실패하고 여비서 진은 패트릭의 다이어리에서 상사의 비정상적 행태를 유추해나가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감독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주체적 대상으로서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려진 여비서 진은 극히 평범하고 소극적 대상으로서, 또한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는 열등한 대상으로 싸구려 옷감의 어깨가 강조된 평범한 워킹걸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반면 약혼녀 에블린(리즈 위더스푼, Reese Witherspoon 분)은 부풀려진 어깨의 모피 코트를 착용하거나 고급소재의 아웃웨어를 착용함으로써 당당하고 주인공 패트릭을 제어하는 여성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패트릭은 약혼녀 앞에서는 대립적인 모습보다는 외면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강한 여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약한 여성 앞에서는 강한 남성

의 이중적이고 위선적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림 3>

이는 복식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종속적이고 수동적 여성성을 거부하고 힘의 원리를 이용한 파워의 균형미를 내세우는 여성으로 넓은 어깨와 퍼 소재로서 더욱더 강조된 어깨와 가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패드로 강조된 어깨가 성공적이고 권위적인 면을 강조하여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페미니즘적 특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② 아웃웨어(Out Wear)와 이너웨어(Inner Wear)의 이중적 모드

1980년대는 여성적 매력으로서 에로티시즘이 표출된 시기로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의 경향이 강했다. 부드러운 여성미와 곡선미를 강조한 룩으로 과시적인 형태를 띠었으며 관능적이고 에로틱 무드를 반영하기 위해 광채있고 흐르는 듯 유연한 소재가 각광을 받았다.

이 시기는 오프쿠뛰르의 시기로 이브닝 웨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사치스러운 디테일을 특징으로 하였다. 원통형의 드레스는 거세콤플렉스를 보상하는 남근의 대치물을 상징하는데 펜슬 라인의 이브닝드레스의 착용으로 영화 속 애인들의 신체의 이미지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권력 속에 혼재하여 바디컨셔스 라인의 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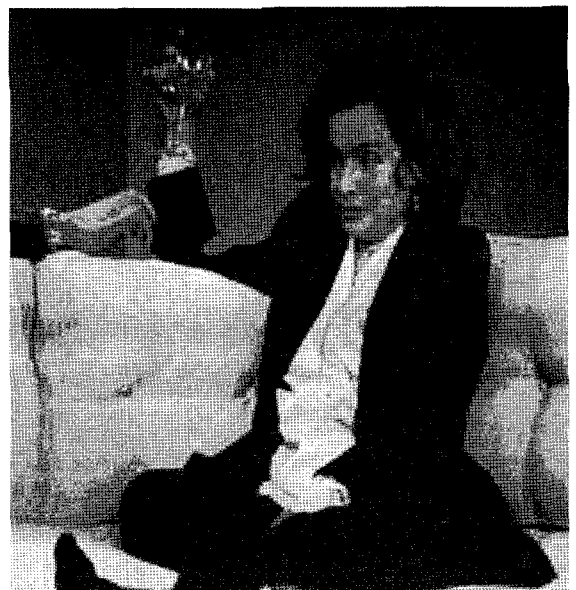
또한 애인 코트니(사만다 마티스, Samantha Mathis 분)가 착용한 드레시한 블라우스는 성적매력을 발산하는 고급소재와 디테일을 활용하여 성공한 여성의 여유있는 삶과 상류계층임을 상징할 뿐 아니라 주인공 패트릭의 편향된 여성에 대한 에로틱한 볼거리로서의 시각적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약혼녀 에블린의 퍼소재의 파워 드레스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그림 4> 바디컨셔스 라인의 드레스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그림 5> 파워수트와 이너웨어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이러한 룩은 파워 수트와 함께 이너웨어로서 입혀지기도 하였는데 옛 애인 엘리자베스(기네비어 터너, Guinevere Turner 분)가 착용하고 있다. 이는 아웃 웨어와 이너웨어의 상반된 이중적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성의 혼재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성을 초월한 가치체계의 표현으로 인간 자체를 중요시 하는 자유로운 감성이나 이상적 신체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 5>

4)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하위문화의 정체성

(1) 생물학적인 성을 파괴한 글램의 등장

1980년대 이후 서구문명비판을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허구를 고발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녀 공동의 인간해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글램을 통해 남성에게 주어졌던 남성다움과 생물학적 성의 개념을 파괴하고자 하였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주류문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하위 문화적 정체성 등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70년대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글램 록(Glam Rock)의 양태는 음악 장르와 함께 스타일을 지칭하였으나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글램(Glam)은 남성이라는 성적 한계를 극복한 인식의 결과로서 나타났으며 양성적 외모로 성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드래그(Drag)로서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을 통해 기존의 가치 체계를 비판하고 저항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려 하였다.

그들은 인체에 피트된 실루엣과 여성용 속옷 형태와 프록코트(Frock Coat)나 켈로프 바지를 착용하였고 가죽이나 시퀸(Sequin), 모피, 매끄러운 소재의 나이론과 메탈릭 소재를 이용하였으며 붉은 색과 흰색을 즐겨하였다. 또한 블론드 머리카락이나 오렌지나 블루 빛의 가발과 플랫폼 폼 슈즈(Platform Shoes)로 외계인과 같은 외모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림 6>

메이크업으로는 펄이 들어간 핑크나 바이올렛 칼라를 사용하였고 입술주위를 붉은 색이나 검정색으로 라인을 그려 넣어

그로테스크함을 강조하거나 얼굴은 하얗고 입술만 빨갛게 그려 넣은 가부끼(Kabuki) 스타일의 화장법을 하기도 하였다.

(2) 양식화된 추(醜)를 추구하는 펑크(Punk)족의 등장

펑크는 하위문화요소로서 주류와 공존하였다. 혐오스럽고 역겨운 스타일을 창조한 펑크는 미의식에 대한 부정으로 머리를 칼라플하게 염색하고 검은 색을 주조로 한 드라큐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과 부풀리거나 세운 머리에 슬래쉬, 구멍, 견장, 박음선의 노출 등 기존의 복식의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복식의 변형이나 파괴시도 등 시각적 요소로서 표현되었다.

약혼녀 에블린의 사촌인 펑크족들의 등장은 그들의 헤어 스타일과 패션스타일과 무표정에서 여피족의 도시 지향적이며 물질지향적인 공허한 삶을 조롱하고 있으며 감독은 이들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파생은 20세기 이후 도시집중화에서 기인하며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사회계층간 위화감에 대한 항거 등을 담고 있으며 복식으로서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림 7>

펑크족들은 사회계층,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 미래에 대한 야망의 포기, 허무주의, 무질서주의, 무정부주의로 도피하였는데 이것은 복식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기존의 복식이나 율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찢고 구멍을 냈다. 옷이란 오브제가 아니라 현대문명의 이기인 물질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여, 인간성의 말살에 대하여 고발하였다(박명희, 1991).

그들은 일부러 추해보이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존의 미적 우위를 전복하려 하였다. 부풀린 머리스타일에 음침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메이크업을 즐겨하였으며 특히 펑크감각은 1980년대 들어서 뉴 웨이브로서 하이패션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영화 속 펑크의 특징은 지배적 가치와 윤리로부터의 상업화된 일반패션을 거부함으로써 여피들의 고급패션에 대한 반패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6> 글램 스타일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그림 7> 펑크족 스타일
(출처: (주) 스펙트럼디브이디 아메리칸사이코 SE)

V.결론

영화 속 복식은 은유적 의미체계라 할 수 있다. 스토리의 전개 시 캐릭터의 정보를 관객에게 줌으로서 캐릭터의 연령이나 신분, 지위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을 파악케 하며 극의 이미지나 캐릭터의 심리상태까지도 표현하는 한 도구로서 배우의 동작이나 표정 등과 함께 함축되어 연출된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는 1980년대 미국의 여피문화를 조롱하는 영화로서 여피의 생활상이 특정계층의 고급문화임을 자처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선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병든 이층적 문화임을 하위문화인 글램과 펑크족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사회적 계층 중 주류 계층이 점유하고 있는 고급문화를 통해 1980년대 오프뚜뜨르 패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계층에 의해 형성된 저항문화로서의 반패션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의 가치의 표현이라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는 소극적이고 약한 여성 앞에서는 권위적이며 위압적인 태도로 권력구조상의 우위를 점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글루밍, 외모가꾸기와 패션스타일에 관한 관심은 기존의 남성관에 반하는 가치체계를 보여줌으로서 19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정통 클래식 아이템으로 상체를 강조한 수트와 타이트 스커트, 통이 좁은 바지스타일을 기본으로 한 파워수트나 파워드레스를 입음으로서 주체적이며 독립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너웨어는 고급소재와 드레시한 디테일의 활용으로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바디콘서스 룩으로서 겉옷과 이너웨어의 서로 다른 이중적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관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의미로 외모나 헤어스타일, 메이크 업의 극단적 변형을 통해 이성 복식의 착용 등 패션을 통해 반항적 의미로 글램 등이 연출되었으며 물질문명과 획일화된 현대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가치의 표현인 반패션으로서 양식화된 추를 추구한 펑크족이 영화 속 도구로 사용되었다.

■ 참고문헌

- 김경옥, 금기숙(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247
- 김미성, 김옥진(1999), 1960~1970년대 영화의상이 20세기 후반 패션에 미친 영향, *가정과학연구*, 9, 70
- 이정희(1996), Edith Head의 작품을 통해 본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2), 222
- 이정희(1997), 영화예술에 나타난 의상이 유행에 미친 영향, *복식*, 31, 146
- 박명희(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6
- 박지훈(2006), *영화제작 매스터북*, 서울: 책과 길 미디어, 150
- 엄소희(1995),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26, 107
- 전성정, 안현경, 이규영, 문윤경(2002),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7-208
- 정현숙, 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11, 237
- 정홍숙(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404
- 최호정, 하지수(2005), 우먼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2), 131
- 한귀자(2002),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보보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 Gilles Lipovetsky(1987), *L'empire de l'éphémère*, 이득재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0
- Ralph Stephenson(1996), *The Cinema as Art*, 송도의역, 서울: 열화당 미술선서, 166-167
- Lurii Tynianov의 3인(2001), *영화의 형식과 기호*, 오종우 역, 서울: 열린책들, 249
- 기타(DVD)
(주) 스펙트럼디비디 아메리칸사이코 SE
(2006년 10월 11일 접수, 2006년 11월 21일 채택)